

## — Sat-75 —

### 폐분리증으로 오인된 폐실질내 대동맥 가성 동맥류 1예

아주의대 호흡기내과 조숙경\*, 임승관, 신승수, 오윤정, 최영화, 박광주, 황성철

가성 동맥류란 일부의 확장된 동맥으로, 혈관벽의 연속성이 파괴되면서 주변 조직으로 혈액의 혈관외 유출이 발생하고 성유성 조직의 피막을 형성하면서, 결과적으로 파열된 내막이 육아종이나 반흔 조직으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가성 동맥류는 감염, 외상, 외과적 시술등 여러 기전에 의해 발생 가능하고 대부분 다양한 혈관 시술이나 동맥 천자 후 호발한다. 대동맥에서 발생하는 가성 동맥류는 빈도가 드문 편이며, 주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동맥관 인대 가까이의 대동맥 협부에서 호발한다. 임상적으로 약 50%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흉통이나 혈액 누출 및 파열로 인한 저혈압등이 생길 수 있다. 저자들은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폐분리증 진단하에 수술하였으나 병리 결과 대동맥의 가성 동맥류로 진단된 예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7세 남환이 1개월간의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결핵성 뇌막염으로 치료 받았으나 그 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결과 7.6x9.2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폐하엽에서 관찰되었고 그 내부에는 불규칙한 벽을 가지면서 강한 조영 증강을 보이는 가성 동맥류가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가성 동맥류는 짧은 출기를 동반하면서 내림 대동맥으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양상을 보였고, 종괴 주변의 폐는 수동적인 무기폐와 함께 간유리양 음영과 폐경계 소견이 보여 폐출혈이 의심되었다. 폐분리증과 가성 동맥류를 감별하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혈관 조영상 내림 흉부 대동맥에서 짧은 출기를 통해 좌측 폐로 분지되는 혈관과, 이후 정맥내로 배액되는 소견을 보여 폐분리증 진단하에 좌측 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조직 검사 결과 혈관의 벽이 확장되고 내막이 파괴된 가성 대동맥류 소견을 보였고 주위의 폐 실질내 염증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관찰되었던 종괴는 가성 대동맥류에 의한 섬유화 조직과 혈종으로 판단되었다. 환자는 술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고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 — Sat-76 —

### 미만성 폐 동정맥 기형 1예

경북의대 내과 이재희\*, 이신엽, 손지웅, 차승익, 박재옹, 정태훈, 김창호

폐 동정맥 기형은 폐동맥과 폐정맥 사이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얇은 벽을 가진 혈관낭을 형성한다. 임상적으로 뇌졸중, 뇌농양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과 폐출혈, 저산소증 등을 일으킨다. 40~65%에서는 유전성 출혈성 혈관확장증형태로 나타나며 드물게 양폐에 미만성으로 침범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미만성 폐 동정맥 기형이 보고 된 바는 없고 국외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이 경험한 미만성 폐 동정맥 기형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1세 여자 환자로 3년간 서서히 진행하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0년전 뇌농양으로 수술한 병력이 있었으며 가족력상 특이 소견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청색증 및 곤봉지를 보였으며 폐청진시 특이 소견 없었다. 대기산소분압하 동맥혈 가스분석시 pH 7.4 PaCO<sub>2</sub> 36.8mmHg PaO<sub>2</sub> 40.5mmHg HCO<sub>3</sub> 23.9mmHg SaO<sub>2</sub> 78.8%을 보였고 Hb은 18g/dL였다. 폐기능 검사에서 FEV<sub>1</sub>과 FVC는 각각 추정 정상치의 113%, 115%였으며 FEV<sub>1</sub>/FVC는 65%, DLCO는 42%였다. 간기능 검사 및 간 초음파상 특이 소견 없었다. 단순 흉부 X선상 우상엽에 다발성의 미세 결절들과 선상의 음영이 관찰되었고 흉부 단층촬영상 폐변연부 혈관들의 미만성 확장이 관찰되었다. 폐관류 스캔상 우좌단락 소견을 보였고 contrast심초음파시에도 폐내 단락이 관찰되었다. 폐혈관 촬영술시 전 폐야에서 초기에 정맥이 조영되었으며 모세혈관의 미세한 그물망형성을 볼수 있었다. 뇌 자기공명 사진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상부 위장관 내시경시 혈관 확장증은 없었다. 환자는 미만성 폐 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되었으며 병변이 양폐야에 광범위하게 침범되어 있어 폐동맥 색전술 및 수술의 적용이 되지 못한 채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